

겨울철새들의 군무 속으로 떠나다

● 온 땅 온 하늘 덮쳐오는 저 발랄한 '회오리', 해남가창오리

해마다 겨울이 되면 흑심한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나마 행복하고 살맛나게 해주는 것이 있으니 바로 겨울철새들의 역동적인 몸짓이다. 북반구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자리가 겨울철새들이 지나가거나 머무르기에 마땅한 장소인지라 지구상의 어느 나라와 달리 겨울엔 우리나라에 철새들이 많이 찾아온다.

겨울철새 중에서도 해남 고천암호의 가창오리가 가장 많은 개체수와 군무를 보여주기엔 당연 겨울철 볼거리로는 으뜸이다. 또 새하얀 눈이 내린 전남 곡성 섬진강변에만 유독 많이 몰려있는 청둥오리떼 또한 겨울철에만 볼 수 있는 별난 볼거리이기도 하다.

겨울철 여행의 볼거리는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 사람의 마음까지도 순백의 순수함으로 색칠해주는 백설, 그리고 온 하늘을 활력으로 채우는 겨울철새들의 군무이다. 그러나 백설은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뭐니뭐니 해도 겨울여행 볼거리의 진수는 철새들의 떼춤이라고 하겠다. 겨울철새들의 군무를 어느 다른 자연물에 비교할 수가 있을까? 어느 한여름의 폭풍우나 북풍한설 눈보라가 이렇게 세찰 수 있을까? 일찍이 이만큼 걱정적이고 생동감 폭발하는 자연 다큐멘터리가 있었던가? 작은 생명체들이 모여서 강과 산을 이루고, 마침내 온 땅과 하늘을 생명기운으로 제압해 버리는 '살아 있는 우주' 가 우리 곁에 있다. 겨울잠에 움츠려 있는 세상을 단번에 활력과 환희로 채워버리는 자연의 조화-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고천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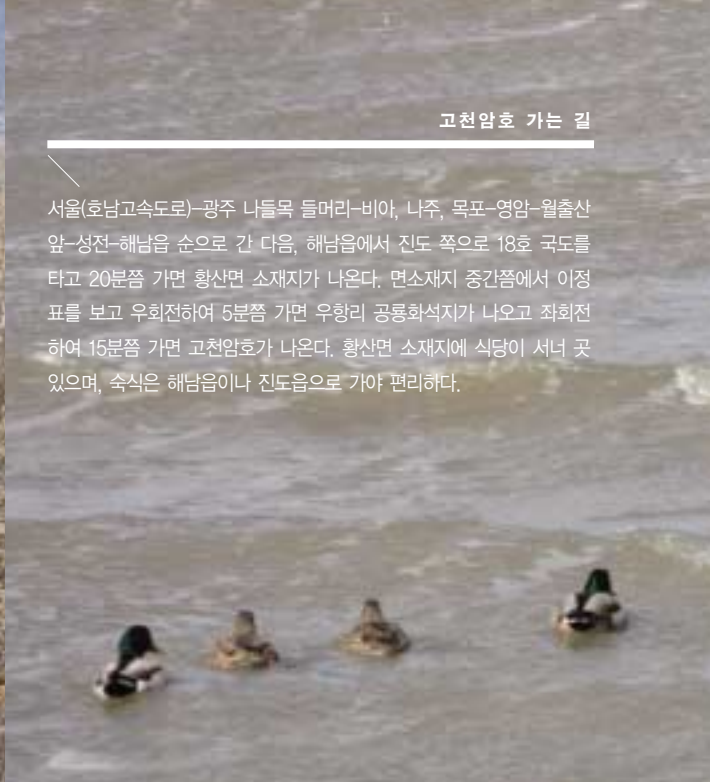
호에 가면 그 '생명마당'을 만날 수 있다. 어떤 조류학자는 17만 마리라고 하고, 100만 마리가 넘는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고천암호의 물과 하늘을 덮고 있는 가창오리 무리를 보면 수를 센다는 것은 하찮은 일이 되고 만다. 생명이 저렇게 발달하고 장엄할 수가 있다는 사실에 힘이 솟구침을 느낄 뿐이다.

겨울 고천암호에 새까맣게 가창오리떼가 찾아오는 것은 최근에 생긴 일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산 간척지 현대농장과 그 주변 서해바다 쪽에 몇 개의 작은 무리가 오락가락한 적은 있다. 또 가끔 천수만 주변 하늘에서 먹구름처럼 날아가는 가창오리 무리가 눈에 띄기도 했다. 그렇지만 고천암호에서처럼 거대한 규모로 한곳에 밀집해 가까이서 발견된 적은 없다. 몇 개로 나뉘어 배회하던 오리떼가 먹이가 많고 습기가 안락한 고천암호를 찾아내 내려앉았을 것이다. 서산 현대농장은 추수를 하지마자 논을 갈아엎어 버리고 서해바다 쪽은 시화호다, 새만금호 간척 사업이다 하여 살 곳이 못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고천암호는 갈대밭이 풍성해서 맘 놓고 잠을 잘 수가 있고 주변 논에 겨우내 주워 먹을 나락이 많이 깔려있다.

또 호수 안에는 붕어, 모치 등 민물고기와 바닷고기가 섞여 살고, 호수 바깥쪽은 걸쭉한 개펄에 파래나 돌김 등 진수성찬이 잘 차려져 있다.

고천암호 가창오리들은 하루 내내 주로 호수 안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온갖 쇼를 벌인다. 갈대밭 사이에 앉으면 오리와 갈대가 구별이 안 된다. 새 '을(乙)자' 모양의 변종 갈대밭이 한 군데 광활하게 더 들어섰구나 생각하면 된다. 그 오리들은 사람이 가까이 가도 별로 경계하지 않는다. "수많은 무리 중에 하필이면 내가 다치랴..." 하는 심사인 것 같다. 가창오리들이 날아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대개는 한쪽 방향으로 줄을 지어 날아가지만, 호수 위에서 앉을 자리를 찾아 갑자기 방향을 180도 바꿀 때는 몸뚱이만 헛별에 반사돼 일제히 드러난다. 또 몇 개의 무리가 여러 방향에서 오가다 뒤섞일 때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에 온갖 먼지가 휘날리듯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된다. 그래도 부딪쳐 떨어지는 놈 하나 없다. 다만 거기에서 함께 붙어 다니는 이웃이나 짝이 있을지, 오직 군중 속에 외로운 혼자만의 세계가 아닐지, 그러면서 그 거대한 사회가 어떤 기술로 통제·유지되며 이동하는지가 궁금해진다.

서울(호남고속도로)-광주 나들목 들머리-비아, 나주, 목포-영암-월출산 앞-성진-해남읍 순으로 간 다음, 해남읍에서 진도 쪽으로 18호 국도를 타고 20분쯤 가면 황산면 소재지가 나온다. 면소재지 중간쯤에서 이정표를 보고 우회전하여 5분쯤 가면 우항리 공룡화석지가 나오고 좌회전하여 15분쯤 가면 고천암호가 나온다. 황산면 소재지에 식당이 서너 곳 있으며, 숙박은 해남읍이나 진도읍으로 가야 편리하다.



● 순백의 강변에 순청색 암록빛갈, 섬진강 청둥오리

해마다 겨울 한두 번쯤은 섬진강 주변에 많은 눈이 내린다. 섬진강변 길에 눈이 쌓이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눈이 일단 내리면 이곳은 온통 순백의 세상으로 변한다. 숨이불처럼 쌓인 눈을 두툼히 두르고 흐르는 강줄기의 모습에서는 추위보다는 훈훈한 온기가 느껴진다.

눈 덮인 섬진강 강물 위엔 나뭇대로 제철을 만난 생명체들의 모임이 있다. 청둥오리들이 ‘우리 세상이다’ 하고 겨우살이터를 차리는 것이다. 풍치가 좋고 물살이 맑은 빠른 강 대목마다엔 해마다 청둥오리들이 떼지어 날아온다. 그런 대목엔 껍지와 쏘가리 등 식량이 떼지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청둥오리들의 몸짓은 하루 종일 변화무쌍하다. 암수가 짝지어 한가히 놀고 있는가 하면 수십 마리씩 떼지어 이리저리 날아 장소를 옮겨 다니기도 한다. 하나의 모임은 30~50마리, 목에 암록색 목도리를 두른 수컷들이 3분의 2, 나머지는 체구가 작고 몸 전체가 갈색인

암컷들이다. 이들은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역류해 오르면서 물질을 하다가 간혹 강물에 그냥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는 등 온갖 수중발레를 하면서 먹이를 구하거나 놀고 있다. 해마다 이 청둥오리떼의 귀향으로 겨울 섬진강은 향량함을 면하곤 한다. 아니 향량하지 않다가 보다는 봄·여름·가을에 못지않은 활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목에 순청색(이른바 암록색)의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청둥오리 수컷들의 색깔은 순백의 겨울 섬진강 수채화에 좋은 배색을 넣어주는 요소이다. 그 청둥오리들이 놀고 있는 위쪽에 호젓한 호곡나루가 있다. 거기엔 시정어린 줄나루가 한 대 건너다닌다. 나룻배 역시 한 겨울엔 하얀 눈을 둘러쓰고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호곡나루가 지나다니는 옆에서 청둥오리들은 아랑곳없이 꺾꽂소리를 지르며 제 세상을 누리고 있다.

호곡나루 언덕에 말라붙은 과실을 달고 서 있는 몇 그루의 산수유나무가 눈 속에서 서 있다. 눈에 덮여 빼꼼히 세상을 내다보고 있는 붉은 산수유 열매 또한 순백의 섬진강에 채색을 더해주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